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金 美 淑

본 연구는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影響力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傳統的 性役割態度를 갖고 있을수록 공동체, 종교, 고용상태 및 수입에 대한 만족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傳統的인 性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現代的인 性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자존감이 더 낮았고, 우울감을 더 경험한다. 즉,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 수준은 높았으나, 부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 수준도 함께 높게 나타나, 총체적으로 정신건강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와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감에서 전통적인 여성이 전통적인 남성보다 더 이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性역할과 만족감에 대한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내려져야 하겠다.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性역할태도는 남녀간에 융통성 있게 상호 교환가능하고 평등한 역할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 주요용어 : 性역할태도, 精神健康, 만족감, 행복감, 우울감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南貞子 副研究委員과 徐文姬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남자는 남성에게 적합한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사회에 지배적이다. 정치나 사회에 관련된 일은 남자가 해야 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도 48%로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통계청, 1996).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사회구조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남녀평등을 지향하나, 다른 편으로는 여성의 처소는 곧 가정이라고 규정하여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즉, 아직도 사회에서는 여성의 주된 역할은 가정인 사적 영역에 있고, 남성의 역할은 가정 밖의 공식 영역에 있다는 성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社會成員들은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기대로 인해서 갈등과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경험한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는 남성들은 사회가 부여하는 經濟的, 心理的 報償과 가정에서의 역할의 면제 등으로 비교적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성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남성들도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情緒的인 억압으로 불만족과 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性役割態도와 精神的인 健康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보다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여태까지 성역할태도가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차원적 측면에서의 정신건강인 행복감이나 우울감만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인지적 정신건강인 만족감과 정서적 정신건강인 행복감인 긍정적 측면의 정신건강 및 우울증인 부정적 측면의 정신건강을 모두 다루

지 않고는 정신건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러한 연구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은 낮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준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울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남녀의 우울감 점수의 차이만을 비교했지, 성역할이 우울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면서, 본 연구는 성역할태도가 다양한 차원의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조사된 지역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전통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역할태도가 두 측면의 정신건강인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정신건강 상에서의 차이와 성역할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두 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II. 既存의 研究와 假說

1. 性役割態度와 精神健康의 概念

우선 성역할과 성역할태도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역할(Gender Roles)이란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위에 대한 구성원간의 기대를 말한다(Blanchard-Fields et al., 1988). 이것은 단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속성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 두 성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 태도, 감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데, 산업화된 사회에서

는 남성은 개인적, 도구적, 이성적, 업적 지향적으로 사회화되고, 여성은 표현적, 감정적, 관계적, 의존적으로 사회화된다.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란 개인의 성역할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Fisher, 1982).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인 태도에서 현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선 상에 있다. 傳統的(Traditional)인 성역할태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은 행위, 능력과 기질에 있어서 다르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에게는 자율성, 적극성, 목적 지향성이 있고, 여성에게는 표현성, 의존성, 수동성, 관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성은 지배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지도자 등 사회에 공헌적인 역할에 적합하고, 여성은 아내, 어머니, 성적 대상 및 가사일에 적합하다고 본다. 반면, 비전통적인 혹은 現代的(Liberal)인 성역할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특히 성에 기초한 분업을 부정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건강(Mental Well-Being)은 '심리적인 안녕도'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뉜다. 객관적 정신건강(Objective Well-Being)이란 수입, 건강, 부 등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관적 정신건강(Subjective Well-Being)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 평가적 정신건강인 주관적 정신건강만을 다루었다¹⁾.

주관적 정신건강은 다시 認知的인 것(Cognitive Well-Being)과 情緒的인 것(Affective Well-Being)으로 나뉜다. 인지적인 정신건강이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의 정신건강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Satisfaction)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1) 객관적 정신건강도가 높다고 반드시 주관적 정신건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즉, 개인이 부, 명예, 재산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만족감, 자존감 및 행복도는 낮고, 우울증은 높을 수 있다.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Campbell과 그의 동료들(1976)은 이것이 개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거나, 자신의 열망과 성취 사이의 괴리를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지적인 정신건강과는 달리 정서적인 정신건강은 개인에게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감정 상태를 일컫는다(Glazer, 1986). 이는 다시 긍정적(Positive) 측면의 정신건강과 부정적 측면의 정신건강으로 나뉜다. 긍정적 측면²⁾의 정신건강이란 현 상태의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행복도를 말하고, 부정적인(Negative) 측면의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얼마나 불안, 걱정, 불면 등의 우울감(Depression)을 느끼는가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도가 높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Bradburn, 1969). 즉, 어떤 개인이 행복감을 갖더라도 하더라도, 동시에 우울감이 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상호 독립성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表 1>과 같다.

<表 1> 主觀的 精神健康의 區分

| |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
|----------|----------|--------|
| 인지적 정신건강 | 만족감, 자존감 | |
| 정서적 정신건강 | 행복감 | 우울감 |

다음은 성역할태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2) 만족감과 자존감도 인지적, 정서적인 성격을 떠나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면 긍정적 측면의 정신건강복지에 속한다.

2. 既存의 研究 및 假說

우선 성역할태도가 인지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역할 일치론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을 때 인지적인 정신건강도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적인 승인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Markides와 Vernon(1984)은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젊은 세대 남성들에게는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나이라는 변수가 통제되어야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Amato와 Booth(1995)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태도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에게 결혼에 대해서 상반된 만족도를 갖게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하는데 반해서,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기혼남성은 오히려 결혼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성과 성역할은 상호작용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의 인지적 정신건강인 자존감에 있어서, Connell과 Johnson(1970)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성역할이 주는 영향이 상이함을 발견했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남성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통적 남성의 역할인 도구성, 경쟁성, 창조성을 갖고 있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으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데 반해서, 전통적 여성의 역할인 수동성, 민감성을 갖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다음에는 성역할태도가 정서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정서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은 긍정적인 측면인 행복감과 부정적인 측면인 우울감으로 나뉜다. 우선 행복감에 대해서 살펴보면, Campbell과 그의 동료(1976)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출하나, 동시에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Lueptow와 그의 동료(1989)의 여성들의 행복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삶에 대해 더 행복해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소유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행복감을 많이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성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인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역할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역할이 다양할수록, 개인은 그 역할에 대해서 더 만족한다고 했다. 既婚男性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부양자, 가장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既婚女性은 주로 한 가지 주부역할만을 수행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역할에 국한된 여성들은 만족의 근원이 오직 가정 한 곳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비구조화되어 있고, 보이지 않고, 낮은 지위를 부여한다. 반면, 남성은 다양한 곳에서 만족의 근원을 찾을 수 있어서, 한 곳에서 불만족하면 다른 곳에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족의 근원이 제한된 전통적인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의 도구적 역할이 그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Pleck, 1976; Harrison, 1978). Harrison(1978)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의 역할은 남성들이 비언어적, 경쟁적, 비표현적, 성공지향적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관계적 성취감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들이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남성적이지 않다고 사회에서 받아들이므로, 실제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과 정서적 억압이 남성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

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성취지향적, 경쟁지향적 성향이 더 많은 자살률로 이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Girard, 1993).

한편 Johnson(1982)은 현대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여성이 보다 높은 성취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기준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Mirowsky와 Ross(1995)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슬픔'이나 '화'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보다 더 괴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다른 이유는 여성의 차별적 사회화 과정에 있다. 여성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력함(Helplessness)'을 배운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우울감을 낳는다. 즉, 여성은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지 않도록 사회화되므로, 남성보다 더 우울하게 지낸다(Seligman 1975). Mirowsky와 Ross(1995)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30%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假說을 도출했다.

- 가설 1: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과 영역별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가설 2: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가설 3: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가설 4: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우울감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심화시킨다.
- 가설 5: 성역할태도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은 남녀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Ⅲ. 調査資料 및 方法

1. 調査資料

본 연구에는 미국에 소재해 있는 A지역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1987년에 미국의 A대학의 社會學科를 주체로 그 지역주민의 일, 가족생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으로 電話面接法이 사용되었다. 이 중 한 카운티(County)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번호 표본추출을 하여 표본을 선정했다. 이 연구에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다.

총 응답자수는 706명이고, 이 중 남자 312명, 여자 394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 범주는 35세에서 54세 사이이고, 평균 대학 1년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中位家口收入(Median Household Income) 범주는 25,000\$에서 34,999\$ 사이로 미국 가구의 연간 중위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반 이상인 57.7%가 기혼자이고, 11.7%는 이혼자, 2.0%는 별거자, 8.6%는 사별자, 미혼자는 20.0%이다.

응답자의 약 반인 49.3%가 영구직을 가지고 있고, 15.4%는 임시직을, 16.3%는 은퇴를 했고, 19.0%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 있다. 영구직은 남성(64.8%)이 여성(38.7%)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임시직은 여성(19.3%)의 경우가 남성(9.6%)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여성(25.4%)이 남성(9.6%)보다 무직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2. 測定方法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성역할태도로, 이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10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 여성은 정치를 남성에게 맡겨야 한다, (2) 여성도 자격이 되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다, (3)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에 더 적합하다,

(4) 남성이 주요 공급자가 되고 여성이 가정을 돌보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다, (5)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면 남성도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을 해야 한다, (6) 부인은 남편의 경력을 위해 내조해야 한다, (7)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분명하므로 남녀는 서로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 (8) 데이트 할 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경비를 분담해야 한다, (9)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10) 여성도 남성처럼 군복무를 해야 한다이다. 응답은 '절대 찬성'에서 '절대 반대'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측정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많음을 나타낸다.

10개의 문항 중에서 세 문항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데이트시 경비 공동부담', '여성의 군복무 의무' 등은 요인분석 후에 변수의 커뮤날리티(communality)와 요인 적재량이 낮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7개 문항에서 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alpha=.82$) 이 문항들은 회귀분석을 위해서 합산되었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정신건강으로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지적 정신건강인 만족감과 자존감, 그리고 긍정적 측면의 정서적 정신건강인 행복감과 부정적 측면의 정서적 정신건강인 우울감으로 구성된다.

만족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10가지 영역별(공동체, 이웃, 종교, 친구, 결혼상태, 가족, 집안일, 고용상태, 수입, 건강) 만족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는 여러 영역별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10가지 영역에 각기 두 개의 동일한 질문을 하나는 긍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질문하였다. 즉, 삶 혹은 위에서 제시된 10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만족하고, 동시에 얼마나 불만족하는지를 질문했다. 응답은 '매우 실망'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주었고, 이 두 개의 질문은 합해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모두 11개의 만족감에 대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한 변수가 만들어졌다.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1) 얼마나 자신을 가치있게 느끼나, (2) 다른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나, (3)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나, (4)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나이다. 이 중에서 한 문항인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나’는 요인분석을 한 후에 낮은 요인 적재량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세 문항을 합산해서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alpha=.72).

〈表 2〉 情緒的 精神健康의 要因分析 結果

| 변 수 | 요 인 | 요인 적재량 | | |
|-------------------|-----|--------------|--------------|------------------|
| | | 요인 1: 행복감 | 요인 2: 우울감 | 요인 3: 대인관계 문제 |
| 나는 삶을 즐긴다 | | .71 | -.28 | -.04 |
| 나는 행복하다 | | .67 | -.27 | -.06 |
| 나는 좋은 사람이다 | | .59 | -.08 | -.02 |
|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다 | | .58 | .00 | -.08 |
| 우울하다 | | -.23 | .73 | .23 |
| 슬프다 | | -.25 | .68 | .18 |
|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다 | | -.25 | .68 | .19 |
| 울고 싶다 | | -.14 | .58 | .15 |
| 외로움을 느낀다 | | -.17 | .58 | .41 |
|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는다 | | -.10 | .56 | .11 |
| 무서움을 느낀다 | | -.11 | .53 | .21 |
| 잠을 잘 자지 못한다 | | -.07 | .49 | .21 |
| 집중하기가 어렵다 | | -.05 | .48 | .29 |
| 일을 힘들게 한다 | | .01 | .47 | .40 |
| 내 삶은 실패작이다 | | -.23 | .46 | .36 |
| 식욕이 없다 | | -.08 | .42 | .22 |
| 요즈음 말을 적게 한다 | | -.05 | .42 | .32 |
|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 | -.14 | .42 | .34 |
|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 | -.17 | .30 | .65 |
|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다 | | .04 | .23 | .57 |
| Alpha 값 | | .74 | .86 | .62 |
| 설명된 변량 : | | 41.4% | | |

정서적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우울증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Ensel, 1986). CES-D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0개 문항들의 구성을 보면 4문항은 긍정적인 측면을, 14문항은 부정적인 측면을, 그리고 나머지 2문항은 대인관계 관련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를 Varimax Rotation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表 2>에 나와 있듯이 4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은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으로 '행복감'에 해당하고($\alpha=.74$), 9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는 부정적 정신건강으로 '우울감'에 해당한다($\alpha=.86$).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2가지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 3은 '대인관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alpha=.62$). 요인적 재량이 낮은 5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分析方法 및 모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사용되었다. 비표준화된 회귀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를 통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독립변수로 성역할 이외에 성, 연령, 결혼상태, 고용상태, 교육과 수입이 사용되었다. 성은 더미변수화하여 남성은 기준집단으로 0으로 코드화되었고, 여성은 1로 코드화되었다. 결혼상태도 더미변수화하여 기혼, 이혼, 별거, 사별 네 개의 변수가 만들어졌고, 미혼이 기준 집단으로 사용되었다. 고용상태도 더미변수화하여 영구직, 임시직, 은퇴의 세 개의 변수가 만들어졌고, 무직이 기준 집단으로 0으로 코드화되었다.

성역할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효과를 첨가하였다. 따라서 분석에는 두 개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모델 1은 상호작용효과를 제외시킨 것이고, 모델 2는 상호작용효과를 포함시킨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것이다. 이 모델들은 다음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모델 1(상호작용효과 배제):

$$\text{정신건강}_i = a + b_1\text{성} + b_2\text{연령} + b_3\text{기혼} + b_4\text{이혼} + b_5\text{별거} + b_6\text{사별} + b_7\text{영구직} + b_8\text{임시직} + b_9\text{은퇴} + b_{10}\text{교육} + b_{11}\text{수입} + b_{12}\text{성역할태도}$$

모델 2(상호작용효과 첨가):

$$\text{정신건강}_j = a + b_1\text{성} + b_2\text{연령} + b_3\text{기혼} + b_4\text{이혼} + b_5\text{별거} + b_6\text{사별} + b_7\text{영구직} + b_8\text{임시직} + b_9\text{은퇴} + b_{10}\text{교육} + b_{11}\text{수입} + b_{12}\text{성역할태도} + b_{13}(\text{성} \times \text{성역할태도})$$

IV. 結果

1. 性, 性役割態度와 認知的 精神健康

성역할태도가 인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表 3>과 <表 4>에 제시되었다. <表 3>은 성역할태도가 삶 및 영역별 만족감에 주는 영향을 축약해서 정리한 것으로, 성역할태도 및 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전반적인 삶과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감에 주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와, 다른 유의한 변수들과 전반적인 모델의 설명력인 R²값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역할태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소유한 사람이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삶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 2에서는 성과 성역할태도를 상호작용효과를 첨가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설과는 달리 성역할이 삶의 만족감에 주는 영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 3〉 性役割態度가 삶 및 여러 領域의 滿足感에 미치는 影響

| 영역 | | 성역할 태도 | 성× 성역할태도 | 기타 유의한 독립변수 | R ² |
|-------------|------|-----------|-------------|-----------------------|----------------|
| 1. 삶 | 모델 1 | .005 | - | 수입(+) | .07*** |
| | 모델 2 | -.010 | .026 | 수입(+) | .07*** |
| 2. 공동체 | 모델 1 | .055* | - | 성·연령(+), 별거(-) | .08*** |
| | 모델 2 | .005 | .088* | 연령(+), 별거(-) | .08*** |
| 3. 이웃 | 모델 1 | .031 | - | 성·수입(+) | .07*** |
| | 모델 2 | -.019 | .086 | 수입(+), 사별(-), | .07*** |
| 4. 종교 | 모델 1 | .082** | - | 연령·별거(+) | .11*** |
| | 모델 2 | .062 | .032 | 연령·별거(+) | .11*** |
| 5. 친구 | 모델 1 | .008 | - | 성(+) | .02 |
| | 모델 2 | -.005 | .024 | - | .02 |
| 6. 결혼 상태 | 모델 1 | .018 | - | 기혼(+), 별거·사별(-) | .19*** |
| | 모델 2 | .006 | .022 | 기혼(+), 별거·사별(-) | .19*** |
| 7. 가족 | 모델 1 | .023 | - | 성·기혼(+), 이혼·사별(-) | .15*** |
| | 모델 2 | .060 | -.069 | 성·기혼(+), 이혼·사별(-) | .15*** |
| 8. 가사 노동 | 모델 1 | .031 | - | 기혼·사별(+), 교육(-) | .11 |
| | 모델 2 | -.030 | .109* | 기혼·사별·은퇴(+), 성·교육(-) | .11 |
| 9. 고용 상태 | 모델 1 | .069* | - | 성·연령·영구직·임시직·은퇴·수입(+) | .14*** |
| | 모델 2 | .053 | .029 | 연령·영구직·임시직·은퇴·수입(+) | .14*** |
| 10. 수입 | 모델 1 | .072** | - | 성·연령·수입(+), 기혼·이혼(-) | .29*** |
| | 모델 2 | .030 | .074 | 수입(+), 기혼·이혼(-), | .29*** |
| 11. 건강 | 모델 1 | .018 | - | 수입(+), 이혼(-) | .09*** |
| | 모델 2 | -.023 | .074 | 수입(+), 이혼(-) | .09*** |

註: * p<.05, ** p<.01, *** p<.001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냄.

성역할태도가 여러 영역의 만족감 중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영역은 공동체, 종교, 고용상태, 수입에 대한 만족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그리고 이러한 만족감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 1에서 제시되었듯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갖고 있는 종교, 현재의 고용상태 및 받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만족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효과는 공동체와 집안일에서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만족해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만족해 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 및 여러 영역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를 보면 우선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收入이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수입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表 3의 괄호 안의 부호 참조), 연령은 많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별거나 이혼보다는 미혼이, 수입은 많을수록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태도는 자존감에는 否定的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表 4 참조). 그러나 성과 성역할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설에서 제시된 것과는 달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고용상태와 교육수준이었다.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영구직과 임시직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性役割態度가 自尊心에 미치는 影響

| 독립변수 | 자존감 | |
|----------------|---------|---------|
| | 모델 1 | 모델 2 |
| 성(남성=0) | | |
| 여성 | -.026 | -.129 |
| 연령 | .009 | .009 |
| 결혼상태(미혼=0) | | |
| 기혼 | .228 | .287 |
| 이혼 | .001 | .003 |
| 별거 | .385 | .381 |
| 사별 | -.192 | -.198 |
| 고용상태(무직=0) | | |
| 영구직 | .496*** | .499*** |
| 임시직 | .535* | .535* |
| 은퇴 | -.397 | -.390 |
| 교육 | .044* | .044* |
| 수입 | .020 | .020 |
| 성역할태도 | -.031* | -.035 |
| 성×성역할태도 | - | .007 |
| R ² | .12*** | .12*** |

註: * p<.05, ** p<.01, *** p<.001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냄.

2. 性, 性役割態度와 情緒的 精神健康

<表 5>와 <表 6>에는 성역할태도가 정서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었다. 우선, 긍정적 측면의 정서적 정신건강인 행복감을 보면, 성역할이나 성과 성역할의 상호작용효과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5 참조).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대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성역할이 행복도에 주는 영향력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다는 가설 5도 기각되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고용상태, 수입 등의 세 요인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영구직이나 은퇴를 한 사람보다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無職인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이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 고용상태와 행복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정반대의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입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 性役割態度가 幸福感에 미치는 影響

| 독립변수 | 행복감 | |
|----------------|---------|---------|
| | 모델 1 | 모델 2 |
| 성(남성=0) | | |
| 여성 | .396 | -.635 |
| 연령 | .339*** | .334*** |
| 결혼상태(미혼=0) | | |
| 기혼 | -.474 | -.477 |
| 이혼 | -1.478 | -1.448 |
| 별거 | -.878 | -.922 |
| 사별 | -.660 | -.716 |
| 고용상태(무직=0) | | |
| 영구직 | -1.446* | -1.423* |
| 임시직 | -.533 | -.530 |
| 은퇴 | -1.788* | -1.723 |
| 교육 | -.022 | -.024 |
| 수입 | .296* | .299* |
| 성역할태도 | -.078 | -.119 |
| 성×성역할태도 | - | .072 |
| R ² | .06*** | .06*** |

註: * p<.05, ** p<.01, *** p<.001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냄.

다음은 부정적 측면의 정서적 정신건강인 우울감 및 대인관계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表 6>에 제시되었듯이 성역할이 우울감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밖에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은 연령, 고용상태, 수입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적고, 무직의 경우보다는 영구직이든 임시직이든 직업이 있는 경우가, 그리고 수입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덜 우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성과 성역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감에 주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表 6> 性役割態度가 憂鬱感과 對人關係 問題에 미치는 影響

| 독립변수 | 우울감 | | 대인관계 문제 | |
|----------------|----------|----------|---------|--------|
| | 모델 1 | 모델 2 | 모델 1 | 모델 2 |
| 성(남성=0) | | | | |
| 여성 | 1.779 | -3.204 | -.404 | -1.119 |
| 연령 | -.960*** | -.981*** | -.067 | -.070 |
| 결혼상태(미혼=0) | | | | |
| 기혼 | -1.050 | -1.070 | -.777* | -.778* |
| 이혼 | .615 | .751 | -.252 | -.232 |
| 별거 | -.317 | -.543 | -.096 | -.126 |
| 사별 | 1.106 | .842 | -.465 | -.505 |
| 고용상태(무직=0) | | | | |
| 영구직 | -3.857** | -3.746** | -.342 | -.325 |
| 임시직 | -3.398* | -3.366* | -.226 | -.224 |
| 은퇴 | 4.140 | 4.435* | .069 | .115 |
| 교육 | -.110 | -.119 | -.065 | -.066 |
| 수입 | -.755* | -.742* | -.082 | -.080 |
| 성역할태도 | .227* | .027 | .028 | -.001 |
| 성×성역할태도 | - | .348 | - | .050 |
| R ² | .12*** | .13*** | .06** | .06** |

註: * p<.05, ** p<.01, *** p<.001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냄.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할태도는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리고 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효과도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대인관계 문제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기혼상태로 나타나, 미혼인 사람보다는 기혼인 사람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V. 論議 및 結論

이상에서 성역할태도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認知的 精神健康과 情緒的 精神健康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한 性別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차원의 정신건강에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여러 영역의 만족감 중에서 공동체, 종교, 고용상태, 수입에 대한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존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차원의 정신건강에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행복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우울감은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공동체 및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감에서 性別차이를 나타내, 전통적인 여성이 현대적인 여성이나 남성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傳統的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現代的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해 하지만, 동시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종종 우울해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정신건강 정도가 높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정신건강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Beiser, 1974).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가족적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느끼지만, 동시에 삶의 위기에 대해 무방비적이고 이들의 성차별적 성역할태도 때문에 바

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硬直性은 이들이 변화하는 삶을 잘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역할의 경직성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성역할태도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력의 의미를 보다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달된 性役割理論이 요구된다.

이 연구결과 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공동체 및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는 전통적인 여성이 가사노동에 대해서 더 불만족해 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西歐처럼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맞벌이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유교적 남녀 役割觀이 지배적이다. 가정일과 자녀 양육은 여자의 일이고, 직장일은 남자의 일이라는 이분법적 전통적 성역할이 지배적이어서 맞벌이하는 주부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맞벌이하는 주부들은 비교적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어서 가정안과 밖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반면, 남편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바탕으로 부인에게서 전업주부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집안일에서 면제된 채 전통적인 남편의 삶을 유지하기 원한다. 부인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면을 줄이고 시간적인 여유없이 살면서 항상 몸이 피로한 상태에 있고, 도와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갖고 있다. 여기서 맞벌이하는 가족성원간의 갈등 및 불만족의 여지가 있게 된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남녀간의 역할에 대한 경직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맞벌이부부의 부부관계에 많은 불만족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二重의 勞動負擔을 안고 있는 현대적인 여성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고, 이들의 남편도 부인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한 박탈감으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로 오는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에 위기가 오게 될 수도 있다. 보다 남녀 평등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역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實際의 性役割行爲(Gender Role Behavior)는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성역할태도와 성역할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간의 차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성역할태도와 실제 성역할행위간의 커다란 차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와 성역할 행위간의 차이가 精神健康에 주는 영향도 향후에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구조와 가치도 보다 平等하고, 相互交換的인 남녀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Amato, Paul and Alan Booth,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5, 1995, pp.58~66.

Beiser, Morton, "Components and Correlates of Ment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15, 1974, pp.320~389.

- Blanchard-Fields, Fredda F., and Larry Friedt, "Ag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Three Dimensions of Satisfaction and Sex Role", *Sex Roles*, Vol.18, 1988, pp.759~768.
- Bradburn, Norman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1969.
- Campbell, Angus A., Philip E. Converse, and Williard L. Rod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Connell, D.M., and Johnson J.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fication and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No.3, 1970, p.268.
- Fisher, R.J., *Social Psychology: An Applied Approach*,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 Girard, Chris, "Age, Gender, and Suicide: A Cross-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8, 1993, pp.553~574.
- Glazer, Waldman, *German Social Report*, Germany: University of Frankfurt and the University of Mannheim, 1986.
- Harrison, James, "Warning: The Male Sex Role May Be Dangerous to Your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No.34, 1978, pp.65~86.
- Johnson, Paula B., "Sex Differences, Women's Roles and Alcohol Use: Preliminary National Data", *Journal of Social Issues*, No.38, 1982, pp.93~116.
- Lueptow, Lloyd B., and Margaret B. Guss, "Sex Role Ideology,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0, 1989, pp.383~400.

男女의 性役割에 대한 態度가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

- Markides, Kyriados S., and Sally W. Vernon, "Aging, Sex-Role Orientation, and Adjustment: A Three-Generation Study of Mexican-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39, 1984, pp.586~591.
- Marks, Nadine F.,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8, 1996, pp.917~932.
- Mirowsky, John and Catherine E. Ross, "Sex Differences in Distress: Real or Artifa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0, 1995, pp.449~468.
- Pleck, Joseph H., "The Male Sex Role: Definitions, Problems, and Sources of Chang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2, 1976, pp.155~164.
- Seligman, Martin E.,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francisco: Freeman, 1975.

Summary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ental Well-being

Meesook Kim

The impact of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ental well-being is tested with the sample of 706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reveal the significant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satisfaction with community, religion,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People wi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have higher satisfaction with those domains of satisfaction. At the same time, they have low self-esteem as well as high depression. The findings strongly suggest that, contrary to much popular and clinical belief, the presence of positive mental well-being (high satisfaction)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absence of negative mental well-being (low self-esteem, low depression).

Gender and gender role attitudes have interaction effects on satisfaction with community and housework. The result indicates that traditional females are more satisfied with community and housework than traditional males or nontraditional females. However, this result is not conclusive, because most extant research suggests that females are less satisfied, especially with housework. Therefore, for further research a more elaborate sex-role theory is neede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these well-being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well-being,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flexible and equal gender role attitudes are desirable.